55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전태일 50주기에 돌아보는 청년노동

장 지 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전태일 50주기에 돌아보는 청년노동

장 지 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

01 너무나 많이 변한 것과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열사를 기리는 마음이 모여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감사하게도 청년유니온에 관련 인터뷰나 원고청탁으로 종종 연락을 주시기도 한다. 청년의 모습으로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꿈꾸던 전태일 열사, 남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도 청년이기에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도 연락주시는 것일까 짐작한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50년 전 청년 전태일의 삶과 오늘날 청년의 삶에 대한 것이다. 실은 조금 난감한 질문인데 2020년 청년의 삶과 1970년 청년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산업화가 한창인 1970년 청년의 삶과 일제강점기인 1920년 청년의 삶을 비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 후 폐허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이뤄낸 한국 사회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은 무언가를 비교하기에 굉장한 간극이 있다.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타인의 꿈 같은 일상을 SNS를 통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삶이 도처에 존재하는 2020년을 산업화가 한창인 50년 전과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다만,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도저히 겹치는 것이 없을 만치 시간이 지났다 여기다가도 이건 바뀌어야 하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 싶은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청년노동자의 노동현장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동조합이 청년에게 생소하고 멀기만 한 것도 여전하다.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들이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만은 전태일 열사의 시절에도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다.

02 오늘날 청년노동자의 현장

50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심화이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유노조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이 있다. 전자는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후자는 고용불안정에 낮은 임금 그리고 복리후생이라고 부를만한 것도 거의 없다. 휴학에 졸업유예까지 해가며 안정적이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기를 쓰고 진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층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자금 등 대출을 갚아야 한다. 또, 매달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사라지게 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을 그리기도 한다. 당장의 취업을 유예하고 바늘구멍 같은 중심부 진입을 향해 달려가는 애씀을 '눈이 높아서' 따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등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렇다면 청년이 진입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주변부 노동시장의 현실은 어떨까. 한 예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은 이렇다. 용역업체 변경의 시기가 다가온다. 평소에 하던 일을 오늘까지는 할 수 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새로 들어온 업체가 '아량'을 베풀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 십년감수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몇 개월에 불과한 근로기간이 짧게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 짧은 몇 달의 기간에 고용불안 압박을 느끼며 일을 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순전히 회사의 의사에 따라 다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대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될 수도 있다. 일하는 사람의 의사라는 것은 반영될 근거도, 여지도 없다. 내 삶의 일부인 노동이지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리 결정되어 버린다. 간접고용의 폐해는 고용불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용불안이 뿌리가 되어 과로사와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의 가지를 쳐나가며 노동자가 각종 부당함을 감수하게 만든다. 고용불안은 일터에서 거의 모든 것을 옭아맨다.

산업, 업계 자체가 노동법 사각지대인 경우도 있다. 사양산업이라거나 업계 성장이 멈추었을 때만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업계의 가파른 성장에 걸맞는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 업계의 일원임이 분명한 어떤 노동자에게는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패션업계, 방송업계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가 그렇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이하 '패션어시')는 패션스타일리스트가 여러 연예인을 담당하면서 혼자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채용하는 팀원인데, 패션업계와 방송업계의 유관 직종으로서 두 업계가 갖는 노동법 사각지대의 집합체이다. 「2020년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노동실태조사 결과보고서」(청년유니온, 2020)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98.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89.9%가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데, 전일제로 일하지만 임금은 5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역산해보면 응답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989원,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각지대를 넘는 무법지대이다.

노동 자체가 새롭다기보다는 착취가 신박한 이른바 '새로운 노동' 현장의 문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프리랜서 계약이 남발됨으로써 발생하는 '위장 프리랜서'의 문제가 그 중 하나다.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여 근로계약을 맺어야 했음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방송국에서부터 편의점, 카페, 분식집까지 사람은 쓰고 싶지만 근로계약을 맺고 싶지 않다면 바로 그곳에서 별별 프리랜서 계약이 다 발생한다. 재능을 사고팔도록 하는 웹기반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킨다고 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떼어간다.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던지, 결과물이 어떤 퀄리티로 나오던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플랫폼은 신경쓰지 않는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새로운' 노동이라는 이름하에 보호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정치권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문제만 가지고도 지리한 논쟁을 할 때, 전국민 고용보험을 두고 갈팡질팡할 때,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다. 근로기준법도,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채 위기상황에 휩쓸려 갔다.

03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겨우 10%를 넘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적어도 일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유니온 외의 또래집단에서 기업별이건 산별이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친구도 없을뿐더러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것을 상상해본 친구도 없다. 지난해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청년세대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과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조합원 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조합원 57.7%는 "입사와 함께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고 답했다. 스스로 노조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한 경우는 16%였다.

정규직,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대다수 청년이 진입하는 일자리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노동조합은 중심부와 구별되는,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80% 청년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 내가 속할 수 없고, 나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 조직과 운동에 매력을 느낄 수 없음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절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4,860원, 5,210원, 5,580원으로 매년 찔끔찔끔 오르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한 시간 팔아도 햄버거세트 하나를 사 먹기 어려운 시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은 엄청났다. 최저임금 인상 구호는 대중에게, 청년에게 충분히 지지받았다. 정작,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걸고,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시선이 갈리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이 멈추었고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점 등 복합적 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불황의 모든 탓을 최저임금에 돌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청년의 불안함은 당면한 삶의 문제였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치의 조직들이 이러한 청년의 현실을 헤아렸다면 금액에 한정된 소모적 논쟁으로 여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 미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근로기준법 하에서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의 피해자가 된 노동자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며 그들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같은 대안을 낼 수도 있었다.

가장 최근 노동조합과 청년의 접점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장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잃어버린 공정을 찾아서'라는 문화제를 열었고 취업준비생들이 현장에 함께 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자체가 아니라 '공채 없는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취업준비생은 입사 경쟁률이 높아 수년간 준비해도 들어갈까 말까한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 입사자가 들어가는 것이 무임승차라고 했다. 두 목소리는 '공정하지 못하다'로 수렴되었다.

노동조합과 취업준비생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 아래 함께한 경험을 청년은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내 옆의 사람은 2년마다 하청 업체가 바뀌고 수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그들의 처우개선을 뒤로 하고 내가 소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을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른바 '인국공' 이라 불리기 된 이 사건 이후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이후 조합활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혹시나 이 모습이 연결고리가 된 재생산이라면 악순환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인국공 논란이 공정담론으로 왜곡/확산되는 동안 취업준비생의 목소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지역청년, 비진학청년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노동조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자체에만 골몰했다.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했고 청년과 함께한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같이하는 청년보다 배제되는 청년이 더 많은 지형을 만들고 말았다.

청년세대에 만연한 개인주의로 인해 청년이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만난 많은 청년들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일인양 반응하며 문제해결 과정에 함께했다. 2017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 이한빛 피디가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 폭력적인 환경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을 때 CJ E&M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대책마련 서명운동에는 9,000여명의 목소리가 모였다.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는 현장에도 자리를 준비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했다.

사측이 유가족에게 사과한 것은, '원래 그렇다'는 말로 모든 불법부당을 정리하는 업계에서 재발방지 대책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기성세대가 개인주의라 호명해왔지만 실은 마음이 동할 기회가 없었을 뿐인, 수많은 청년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미는 '역할을 부여 받았으나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고 밝힌 신입사원의 괴로움에 대한 공감, 오늘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갈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이 바뀌어야 마땅하다는 당위.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과 당위였지 어떤 업/직종인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공감과 당위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연대의 경험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이 경험해본 적 없는 세계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못마땅해 할 일이 아니다. 오늘날 노동운동은 청년에게 노동조합의 기억과 경험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04 2020년,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며

전태일 열사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풀빵정신'이다. 풀빵정신이 2020년에 여전히 소중한 이유는 노동운동이 되살려야 할 초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가 바보회를 결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였다. 익히 알고 있듯, 재단사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고생하며 일하는 더욱 열악한 처지의 여공들까지 청년 전태일에게는 모두 '우리'였다.

불안정노동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상위 20%의 울타리는 공고해진다. 20%의 삶도 팍팍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도 쉽지 않다' 개인이 말하더라도, '울타리 밖의 사람들의 생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미덕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전태일 열사의 풀빵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노동조합 본연의 몫을 해내는 것이 아닐까. 먼저 손을 내민다면, 위태로운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청년은 충분히 노동운동에 반응할 것이다.

더 너르게 연대하는 '우리'는 더욱 열악한 지점부터 '함께' 바꾸는 감각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더 커지면서 한 사람의 생에 커다란 빚을 지기보다는 모두가 가능한 애쓰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기대한다. 그러한 기대가 더 많은 노동조합에 심어지기를, 그에 기반한 활동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그 움직임이 청년에게 또 다른 기대를 심기를, 전태일 열사의 풀빵정신에 기대어 소망한다.

전태일 50주기에 돌아보는 청년노동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11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
9 772508 324001
ISSN 2508-3244